

요약

중소기업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의 경제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나, 중소기업 보험 가입률은 저조함.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은 자연재해를 사업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는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함. 싱가포르 중소기업은 사이버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. 태국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을 선호하나, 보험회사는 점차 비대면채널을 확대할 계획임

- 중소기업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; ASEAN)의 경제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나, 중소기업 보험 가입률은 저조함
 - 2020년 기준 동남아시아국가연합¹⁾의 중소기업²⁾은 약 7천만 개로, 전체 기업의 85~99%를 차지하며, 평균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총생산(Gross domestic product; GDP)의 45%, 총수출의 10~30%에 기여함
 -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으며,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음(〈표 1〉 참조)
 - 중소기업은 지식·기술 등 제한된 자원, 치열한 경쟁환경, 금융접근에 대한 장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,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과제임
 -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보험 가입률은 5%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,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채널 확보를 통해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 - 중소기업은 내재된 리스크 유형,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 등이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

〈표 1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별 중소기업 정의

구분	영세기업(MICRO)		소기업(SMALL)		중기업(MEDIUM)	
	종업원 수	기타	종업원 수	기타	종업원 수	기타
	말레이시아					
제조기업	1~4	매출액<300,000 링깃	5~74	매출액<~1,500만 링깃	75~200	매출액<~5,000만 링깃
서비스 및 기타기업	1~4	매출액<300,000 링깃	5~29	매출액<~300만 링깃	30~75	매출액<~2,000만 링깃
	싱가포르					
비특정기업	≤200	매출액≤1억 싱가포르 달러	≤200	매출액≤1억 싱가포르 달러	≤200	매출액≤1억 싱가포르 달러
	태국					
제조기업	≤5	연간 소득≤180만 바트	≤50	연간 소득≤1억 바트	≤200	연간 소득≤5억 바트
서비스 및 기타기업	≤5	연간 소득≤180만 바트	≤30	연간 소득≤5,000만 바트	≤100	연간 소득≤3억 바트

자료: UNDP(2023), "Building MSME Resilience in Southeast Asia with a country focus on Thailand and Malaysia"

- 1)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베트남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태국, 필리핀으로 총 10개국임
- 2) 각 국가별 중소기업의 개념이 다양하나,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을 MSME(Micro, Small, and Medium-sized Enterprises) 개념으로 정의함

-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은 자연재해를 사업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는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함
 -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에는 약 120만 개(전체 기업의 97.4%)의 중소기업이 있고, 2023년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30%만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³⁾를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보험(Business insurance)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
 -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, 에티카(Etiqa) 보험회사는 2023년 태양에너지 사업자의 재정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'태양광 에너지 부족 보험(Solar Energy Shortfall Insurance)'을 출시함⁴⁾
 - 말레이시아의 배달대행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슈어테크 이글루(Igloo)는 2021년 음식배달 서비스 푸드판다(Food panda)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타카ful(Takaful)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질병, 상해 등을 보장하는 '판다케어(PandaCare)보험'을 출시하여 판매 중임⁵⁾

- 싱가포르 중소기업은 사이버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
 - 2022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약 29만 개(전체 기업의 99%)의 중소기업이 있고, 2024년 큐비이(QBE) 보험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77%가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, 응답자의 22%만이 기업휴지보험(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)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⁶⁾
 - 특히, 사이버 리스크로부터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비율은 19%로 작년보다 10%가 증가했으며, 응답자의 38%만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함
 - 델타 보험그룹(Delta Insurance Group)의 계열사인 델타 언더라이팅(Delta Underwriting)은 2024년 중소기업의 개인정보유출, 소송 방어 비용 등의 제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'패키지보험'을 출시함⁷⁾

- 태국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을 선호하나, 보험회사는 점차 비대면채널을 확대할 계획임
 - 2022년 기준 태국에는 약 319만 개(전체 기업의 99.5%)의 중소기업이 있으며, 쌀·옥수수·카사바 등 농작물이 많이 생산됨에 따라 2020년 기준 쌀 재배 농가의 72%, 옥수수 재배 농가의 28%가 보험에 가입함
 - 정부는 쌀·옥수수 재배 농가에게 재해보상금을 지원하나, 카사바 재배 농가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음
 - 태국 보험회사는 주로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, 판매채널은 보험고객을 직접 만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낮아 보험상품 판매의 어려움이 있음
 -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(Lazada)는 2018년 시암 상업 은행(Siam Commercial Bank)과 제휴전략을 맺어 디지털 대출 플랫폼을 출시했으며, 중소기업을 위한 방카슈랑스 채널을 운영 중임
 - 자연재해, 화재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'재물종합보험(Industrial All Risks)'을 판매하고 있음

3) 말레이시아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며, 연평균 53회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3,99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

4) <https://etiqa.com/newsroom/etiqa-launches-solar-energy-shortfall-insurance-sesi>

5) <https://iglooinsure.com/campaign/pandacare>

6) <https://insuranceasia.com/insurance/news/spore-smes-fear-business-interruption-dont-own-insurance-it>

7) <https://www.insurancebusinessmag.com/asia/news/breaking-news/delta-underwriting-launches-new-coverage-offering-482088.aspx>